

# ‘취향(goût)’의 규범과 낯선 것의 시련

## – 볼테르의 셰익스피어 번역

선 영 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취향’ 개념이 번역, 특히 볼테르의 셰익스피어 번역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한다. 볼테르는 영국 망명 시절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를 프랑스 문학에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작품의 독창성과 프랑스 문학 전통의 고유한 취향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는 첫 번역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자유로운 표현을 프랑스 독자의 취향에 맞춰 조정했고, 두 번째 번역에서는 원문에 충실한 문자역을 시도하며 셰익스피어의 결점을 드러내려 했다. 마지막 세 번째 번역에서는 다시 초기 번역을 조금 수정하고 다듬어 내놓는다. 볼테르의 번역은 ‘취향’ 개념이 번역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문학의 취향과 가치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취향, 번역, 볼테르, 셰익스피어 수용, 햄릿, 18세기 프랑스 문학

## I. 들어가며

셰익스피어가 프랑스에 소개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중세 이래로 영국과 프랑스는 깊은 문화적 교류를 이어왔지만, 18세기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번역은 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의 문학도 번역되었지만, 고전 문학

의 번역에 비하면 그 중요성은 미미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프랑스 ‘번역장(場)’<sup>1)</sup>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Berman 1993:18). 이때부터 번역 활동의 초점이 점차 죽은 언어에서 살아있는 언어로, 과거의 작품에서 동시대의 문학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영국 문학이다.

영국 문화과의 접촉은 프랑스 문화와 번역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번역의 급격한 양적 성장이었다. 17세기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된 작품이 고작 다섯 편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18세기에는 그 수가 백 편을 훌쩍 넘어섰다(von Stackelberg 2007:1212). 셰익스피어, 밀턴, 리처드슨과 같은 영국 대문호들의 작품이 프랑스어로 꾸준히 옮겨지기 시작했다. 통속어로 쓰인 문학이 이토록 대대적으로 번역된 것은 프랑스 문화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단순한 수적 증가를 넘어 질적 전환으로 이어졌다. 베르만(1984)의 표현을 빌리자면, 18세기 고전주의 프랑스어에 영어는 그야말로 ‘낯선 것의 시련’이었다.<sup>2)</sup> 영국 작품의 번역 과정에서 프랑스어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 문학의 오랜 규범과 가치에 변화를 불러왔다.

18세기는 ‘취향’<sup>3)</sup>의 개념을 이론화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기 프랑스에서 취향은 단순한 감각적인 쾌락을 넘어, 이성을 바탕으로 한 직관

1) ‘번역장(champ de traduction)’은 번역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베르만(1985)이 부르디외의 ‘장’ 개념을 번역 영역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2) 베르만(1993:21)에 따르면 경험적 언어인 영어는 대상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프랑스어는 반복을 피하며 명확성, 논리성, 형식의 완벽성을 중시한다.

3) 원래 음식을 맛보는 감각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goût’는 ‘맛’, ‘미각’, ‘감식안’, ‘심미안’, ‘미적 감각’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goût’가 문학적, 미학적 맥락에서 예술 작품이나 문학을 평가할 때의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형성된 선호와 감각을 뜻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취향’을 번역어로 선택했다.

적인 판단력, 더 나아가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기준이었다. 17세기 초에는 정해진 규칙과 모델에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평가의 주요 기준이었지만, 점차 규칙만으로는 작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작품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의 근원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je ne sais quoi)’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취향이라는 새로운 판단 기준이 등장하게 되었고(Barbafieri 2015:129), 이 개념은 번역과 작품의 수용 과정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취향’ 개념의 등장은 외국 문학,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의 번역과 수용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볼테르에게 셰익스피어 번역은 자신의 문학적 역량과 미학적 가치관을 시험하는 계기였다. 16세기 말 영국의 언어 문화적 토양에서 자라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감각적인 표현과 넘치는 상상력, 언어의 정교한 유희,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구조를 특징으로 삼는다. 이런 요소들은 프랑스 고전주의가 추구하던 형식적 완결성이나 논리적 명료함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규범화된 취향을 중시하는 볼테르와 같은 18세기 계몽 지식인에게 셰익스피어의 표현 방식은 ‘나쁜 취향(mauvais goût)’의 전형으로 비쳤다.<sup>4)</sup>

볼테르는 셰익스피어를 프랑스에 소개하여 프랑스 문학의 지평을 넓히려 했으나 그의 작품이 프랑스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좋은 취향(bon goût)’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문학적 흐름을 도입하려는 열망<sup>5)</sup>과 자신이 신봉해 온 미학

---

4) 볼테르(1764)는 취향을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과 결점을 신속히 분별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취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모든 이에게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이 보편적 취향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시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강조한다.

5) “영국인들은 우리 프랑스어로 된 작품들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빌려줬으니 이제 우리가 그들로부터 빌려야 할 차례다.” (Voltaire 1734/1879:100)

적 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제 18세기 프랑스에서 ‘취향’의 개념이 번역, 특히 볼테르의 셰익스피어 번역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볼테르가 셰익스피어를 번역하며 맞닥뜨린 문제들과 그가 선택한 번역 전략을 따라가며, ‘취향’이라는 잣대가 번역 작업에 어떻게 스며들고 작용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투입해 기존 가치관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이 점차 확대되며 프랑스 문학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을 조금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셰익스피어의 수용과 번역

### 1. ‘낮선 것’과의 만남

18세기 셰익스피어와 유럽의 만남은 볼테르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26년부터 1728년까지, 3년 남짓한 영국 망명 시절, 볼테르는 셰익스피어의 언어를 익히고 그의 작품을 극장에서 마주했다.

런던의 어느 극장에서 『율리우스 시저』의 피투성이 시신을 목격한 볼테르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영국 연극의 혁신성에 매료된 그는 “관습이 민족의 취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혐오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을 즐거움으로 탈바꿈시키기”(Voltaire 1730/1877:316)를 바랐다. 이는 외국 문화를 통해 프랑스 비극을 쇄신하고 관객의 취향을 변모시키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1731년 『율리우스 시저』를 변안한 『세자르의 죽음』(*La Mort de César*), 1732년 『햄릿』을 간접 모방한 『에리필』(*Eriphile*), 1734년 『철학 편지』(*Lettres philosophiques*)에 실린 『햄릿』의 일부 번역, 1764년 『율리우스 시저』의 주요 장면 번역,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열망의 산물이었다.

『영국에 관한 편지』로도 알려진 『철학 편지』는 볼테르의 망명 시절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이 책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은근히 비교하며 프랑스 절대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영국의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고자 했다. 볼테르는 영국이 정치적으로는 프랑스를 앞섰다고 평가하면서도, 문학과 예술의 영역에서는 프랑스의 우위를 굳게 믿었다.

볼테르는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을 믿었지만, 그의 작품이 다른 문화에 이식될 가능성은 믿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영국의 자연 속에 자란 울창한 나무에 비유하며, 이 나무를 프랑스의 정형화된 정원에 옮기면, 본성을 잃고 결국 말라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Voltaire 1734/1879:156).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16세기 말 영국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 프랑스의 이질적인 환경으로 쉽게 옮겨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궁정 문화는 프랑스 관객들에게는 낯설었고, 영어와 프랑스어의 차이는 셰익스피어 특유의 은유와 유머를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극작법의 차이 또한 그의 작품이 프랑스 문학에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볼테르는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프랑스 문화에 이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정확히 인식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볼테르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전체를 수용하기보다 일부를 선별적으로 번역하거나 모방하려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셰익스피어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몇 개의 가지를 신중히 잘라내어 프랑스 문학의 전통에 접목하려 했던 것이다.

## 2. '나쁜 취향'

볼테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당시 유럽의 문화적 규범이자 모델로 자리 잡은 프랑스 고전주의 미학과 충돌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볼테르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작품 속 결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자주 마

주치는 단어가 ‘야만(barbarie)’, ‘과잉(excès)’, 그리고 ‘나쁜 취향’이다. 이 개념들은 서로 맞물려 경계가 흐릿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야만’은 볼테르에게 이성, 질서, 예법(bienséance)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미개하고 비문명적인 상태를 의미했다.<sup>6)</sup> 예를 들어, 『햄릿』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광기나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 그리고 햄릿이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쥐로 착각해 살해하는 폭력적인 장면 등은 모두 작품을 “야만적인 광대극(farce barbare)”으로 격하시키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볼테르(1748/1878:502)는 이 작품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가장 천한 하층민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칠고 야만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강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과잉’은 볼테르가 중시했던 균형과 절제의 결여를 의미하며, 복잡하고 불필요한 줄거리 전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햄릿』에서 포틴브라스의 군대가 폴란드를 정복하러 가는 에피소드는 전체 줄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하여, 볼테르는 이를 과도한 장치로 보았다. 또한, 묘지 장면에서 두 무덤꾼이 해골을 들고 나누는 농담, 왕자 햄릿이 무덤꾼들과 주고받는 대화는 희극적 요소와 비극적 요소가 뒤섞여 관객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며 극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볼테르에게 ‘나쁜 취향’은 프랑스 고전주의 미학이 정해 놓은 경계를 벗어나 프랑스의 세련된 취향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 과도한 감정적 표현과 감각적 요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는 셰익스피어 작품 속 야만성과 과잉을 이러한 ‘나쁜 취향’의 산물로 여겼다. 결국, 셰익스피어에 대한 볼테르의 비판은 결국 나쁜 취향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6) 철학자 볼테르는 ‘문명화된’ 사회의 부패와 위선을 꼬집는 도구로 야만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이영목 2001), 극작가 볼테르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야만적’이라고 평가할 때, 이는 미개하고 세련되지 못한 상태를 지칭했다.

### 3. 첫 번째 번역 - 『철학 편지』(1734)

볼테르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번역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새로운 문학 세계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그들의 감식안과 취향을 존중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스스로 떠안았다.

볼테르가 특별히 애착을 보인 셰익스피어의 구절 중 하나가 바로 『햄릿』 3막 1장(56~90행)의 유명한 독백이다. “To be, or not to be”로 시작하는 이 대사를 볼테르는 세 차례(1734, 1761, 1764)에 걸쳐 번역했는데, 각각의 번역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의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철학 편지』에 실린 번역은 볼테르가 셰익스피어를 프랑스에 소개한 첫 시도였다. 이 번역에서 볼테르는 셰익스피어 원문이 지닌 거친 맛과 이국적인 요소를 최대한 견어냈다. 예를 들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라는 문장이 볼테르의 언어에서는 “멈춰라, 선택하고 즉시 넘어가야 한다/삶에서 죽음으로, 혹은 존재에서 무로(Demeure, il faut choisir, et passer à l’instant/De la vie à la mort, ou de l’être au néant)”로 바뀐다(선영아 2024 참조).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자유롭고 유연한 구조를 프랑스 고전극 특유의 알렉상드랭 형식으로 변형하고, 1행을 2행으로 확장한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영어는 대화체와 극적 긴장을 강조하며 자유롭고 유연한 구조를 갖지만, 볼테르가 활용한 프랑스 고전극의 언어는 논리적 질서와 대칭을 중요시하는 알렉상드랭 형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볼테르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변형이 아니라, 셰익스피어를 프랑스 문학의 틀에 맞추려는 시도였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직설적이고 감각적인 문장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어조로 바꾸어 프랑스어의 우아함과 논리적 구조를 강조했다.

또한 볼테르는 햄릿에 대한 해석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한 구절(“잠을 잔다. 꿈을 꾸겠지./ 아, 문제는 거기에 있다/ 우

리가 이 필멸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죽음의 잠에 빠져들 때 어떤 꿈들이 찾아올지/ 이것이 우리를 멈추게 만든다”)과 오필리아에 대한 언급(“아름다운 오필리아, 님프여, 당신의 기도 속에/내 모든 죄가 기억되기를”)을 삭제하고, ‘선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모순적 인물이 아닌, 의무와 명예를 중시하는 결연한 주인공을 창조해 냈다. 이렇게 재구성된 험릿은 프랑스 고전극에 등장하는 영웅적 주인공, 특히 코르네유의 『르 시드』에 나오는 로드리그를 떠올리게 한다 (Pei 2022:10).

볼테르는 또한 번역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질문과 사회 비판을 추가했다. 원본에는 없는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막는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Qui suis-je? Qui m’arrête? et qu’est-ce que la mort?)”와 같은 문장을 통해 자신의 성찰을 더하고, “우리의 거짓말하는 사제들(nos prêtres menteurs)”, “헤픈 애인(indigne maîtresse)”(부패한 교회를 비유), “대신(ministre)”과 같은 표현으로 종교와 권력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이런 비판을 통해 그는 당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볼테르에게 번역은 단순히 다른 작가의 생각과 문장을 옮기는 하급의 작업이 아니라, 예술적 ‘기교의 연습’(Volpilhac-Auger 2009:220)이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복잡한 갈등을 단순화하여 죽음을 모든 고통의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원문의 일부가 대담하게 생략되거나 변형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18세기 프랑스의 문화적 입맛과 미적 취향을 만족시켰지만, 동시에 원작의 본질을 희석하거나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볼테르의 첫 번역은 자국 문화의 기준에 맞춰 외국 작품을 재단하는 방식, 즉 ‘자민족중심적 번역(traduction ethnocentrique)’(Berman 1985)와 ‘자국화(domestication)’(Venuti 1995) 전략의 명암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4. 셰익스피어의 부상

1761년, 볼테르는 햄릿의 독백을 다시 번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이전의 ‘자유로운 변안(adaptation libre)’(Billaz 1997:374)과는 달리, 원문에 밀착한 ‘문자역(traduction littérale)’(Voltaire 1761/1878:201)을 시도한다. 그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까닭을 알려면, 그 사이 프랑스 안팎에서 일어난 문화적 지형의 변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중반, 유럽의 정치와 문화 판도가 요동쳤다. 영국과 부르봉 왕조가 식민지와 무역권을 놓고 벌인 7년 전쟁(1756~1763)은 두 나라의 첨예한 대립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무렵 셰익스피어의 명성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그는 영국의 민족주의와 국가적 자부심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볼테르는 셰익스피어의 부상을 프랑스의 문화적 패배로 받아들였고, 셰익스피어와 영국 문학에 대한 그의 태도는 갈수록 강경해졌다. 『고대 및 근대 비극에 관한 논설(Dissertation sur la tragédie ancienne et moderne)』에서 이미 볼테르(1748/1878:502)는 “『햄릿』은 [...]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가장 천한 하층민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거칠고 야만적인 작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볼테르의 비판적인 시각은 특히 1756년에 발표된 『민족의 풍습과 정신에 관한 시론(Essai sur les mœurs et l'esprit des nations)』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여기서 ‘보편적 취향(un goût universel)’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문학과 예술의 평가에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기준, 전 세계 교양인이 공통으로 인정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프랑스 문학, 특히 고전주의의 대표 작가인 코르네유와 라신은 이 보편적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지역적인 아름다움”에 그쳤다.<sup>7)</sup>

프랑스 내부의 문화적 변화 또한 이 문제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18

---

7)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아름다움이 있고, 반면에 지역적인 아름다움이 있다.”(Voltaire 1764/1878:278)

세기 중엽부터 영국 문화에 대한 열광, 이른바 앵글로마니아가 급속히 퍼져나갔고, 그 중심에 셰익스피어가 있었다. 특히, 라 플라스, 뒤시, 르 투르뇌르가 펴낸 번역본들<sup>8)</sup>은 셰익스피어를 프랑스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그의 영향력을 프랑스 문학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열광은 당시 프랑스 최고의 비극 작가로 인정받던 볼테르에게는 프랑스 문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7년 전 쟁 중이던 1760년 『백과전서 저널(*Journal encyclopédique*)』에 영어에서 번역된 두 편의 기사가 연이어 실렸는데, 이 두 기사는 각각 셰익스피어와 코르네유, 오토웨이와 라신을 비교한 뒤 영국 작가들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무장한 그는 프랑스 문학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셰익스피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1764년 1월 다르장탈 백작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테르의 결의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심각한 국가적 사건입니다. 영국인들이 우리 선박을 빼앗고 캐나다와 풍디세리를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귀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라신과 코르네유를 우스꽝스럽다고 여길 정도로 야만성을 보이니, 저는 무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Voltaire, *Lettre au comte et à la comtesse d'Argental, Correspondance VII*, 1953-65, tome, 42, Mayer 2021에서 재인용)

이 사건은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문화적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Mayer 2021).

8) 라 플라스(La Place)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다양한 영국 연극을 번역한 『영국 연극(*Théâtre anglois*)』(1745~1748)을, 뒤시(Ducis)는 『햄릿, 영어에서 모방한 비극(*Hamlet, tragédie imitée de l'anglois*)』(1769)을, 르 투르뇌르(Le Tourneur)는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번역한 『영어에서 번역된 셰익스피어(*Shakespeare traduit de l'anglois*)』(1776~1782)을 출간했다.

볼테르는 『유럽 모든 민족에 보내는 호소(*Appel à toutes les nations de l'Europe*)』(1761)를 통해 공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이 호소문에서 셰익스피어가 영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폴리에 이르는” 모든 민족에 프랑스의 문화적 우월성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 5. 두 번째 번역 - 『유럽 모든 민족에 보내는 호소』(1761)

볼테르가 두 번째 번역을 『유럽 모든 민족에 보내는 호소』에 실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호소문은 영국의 ‘야만성’에 맞서 프랑스의 ‘문명화된’ 취향을 지키려는 그의 문화적 투쟁의 일환이다. 새 번역을 내놓기에 앞서 볼테르는 특이한 전략을 사용한다. 자신의 이전 번역을 마치 타인의 것인 양 논평하며 원작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꼬집는 것이다.

“볼테르 씨는 프랑스에서 그 [=셰익스피어의] 아름다움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대략 30년 전에 밀턴과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하지만 그가 이 작가들의 글 일부를 옮긴 번역들이 충실한 번역이었을까? 그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경고한다. 번역하기보다는 모방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Voltaire 1761/1878:201)

18세기 프랑스 독자의 입맛에 맞춘 이전 번역을 ‘시 구절(*morceau de poésie*)’이라 부르며, 볼테르는 독자들에게 “이 시 구절을 음미한 후 문자역에 눈을 돌리기를” 권한다. 새 번역에서 그는 이전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시도한다. 이런 변화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다(*Être ou n'être pas, c'est là la question*)”로 옮긴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 적어도 이 첫 구절에서만큼은 이전의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두 행의 알렉상드랭”(Serrurier 1920:207)을 덜어내고 원문에 한결 충실하게 다가갔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원문의 35행을 25행으로 축소했고, 원문에 없는 “공평한 신들(Dieux justes)”이나 “우리의 권세 있는 위선자들(nos fourbes puissants)”와 같은 볼테르의 창작물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두 번째 번역에서도 볼테르가 문자역을 철저히 고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볼테르의 두 번째 번역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산물로 보인다. 그는 “이 꼼꼼한 번역(cette traduction scrupuleuse)”을 통해 “셰익스피어 언어의 저속성과 무례함”을 낱낱이 드러내려 했다. 루이 14세 시대를 열렬히 찬양하고 프랑스 고전주의 연극을 극예술의 정점으로 여겼던 볼테르는 문학 장르를 엄격한 위계질서로 이해했고, 장르마다 고유의 형식과 문체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다양한 언어와 문체를 뒤섞는 셰익스피어의 방식은 프랑스 교양인의 취향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엘리트, 일반 대중, 하층민으로 구분되는 프랑스 연극계의 계층 구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다(Naugrette 2017).

라 플라스나 뒤시와 같은 다른 셰익스피어 번역가들이 독자의 취향을 고려해 일부러 생략했던 구절들을 오히려 강조함으로써, 볼테르는 독자들에게 “혐오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려 했다.

볼테르의 첫 번째 번역이 “기생적인 의도들”에 의해 “왜곡”된 (Magnan 1995:796) 번역으로 평가되었다면, 이 두 번째 시도는 셰익스피어의 민낯을 폭로하여 그의 번역 불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의도적인 축어역으로 해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1734년의 ‘시 한 편’보다는 1761년의 “비(非)번역(non-translation)”(Thomas 2013:156)이 오히려 번역의 본래 형태에 훨씬 더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볼테르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 두 번째 번역이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6. 세 번째 번역 - 『철학사전』(1764)

『철학사전』의 「극예술(Art dramatique)」 항목에서 볼테르는 다시 한 번 햄릿의 독백으로 돌아와 새로운 번역을 제시했다. 이 세 번째 버전은 3년 전인 두 번째 버전이 아닌, 30년 전 첫 번역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충실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한 초기 버전으로의 회귀였다. 이것을 프랑스 문학의 전통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번역 전에 셰익스피어의 장점을 먼저 언급하며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다.

“방금 읽은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천재라는 점이다.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그리고 영국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다른 나라의 문인들은 그를 단지 장터의 질(Gilles), 아를르캥보다 못한 익살꾼, 지금껏 하층민을 즐겁게 한 가장 한심한 광대로 여긴다. 그러나 바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서 상상력을 높이고 마음을 관통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 (Voltaire 1764/1878:402)

이 세 번째 번역은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전반적으로 첫 번째 번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작 구절에서만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멈춰라, 선택해야 한다, 존재나 무(無)냐/ 혹은 고통받느냐 소멸하느냐, 이것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Demeure, il faut choisir de l'être ou du néant./ Ou souffrir ou périr, c'est là ce qui m'attend.)”는 첫 번째 버전에 비해 간결해졌지만, 여전히 원문의 함축적이고 강렬한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볼테르는 이 간극을 스스로 인정하며, “지나치게 예법에 까다로운 민족의 언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1764/1878:403) 번역했다고 밝혔다. 번역을 끝낸 후 그는 이렇게 묻는다.

“[...] 셰익스피어 작품의 위대함과 저속함, 숭고한 이성과 조잡한 광기, 요컨대 온갖 대조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가 애디슨(Addison)의 시대에 살았다면 완벽한 시인이 되었을 거라는 점이다.” (*Ibid.*, 403-404)

볼테르는 셰익스피어가 애디슨(1672~1719)의 시대, 곧 18세기 초 고전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다면 완벽한 시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성, 균형, 절제,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시의 문학 기준에 부합했다면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더욱 빛났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작품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는 볼테르의 평가는, 역으로 그 자신이 고전주의적 틀에 갇혀 셰익스피어를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셰익스피어 작품의 시대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18세기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는 볼테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번역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일치한다. 비평가들은 이 세 번째 번역이 첫 번째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원문의 운율과 표현력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토록 짧고 그토록 울림 있는 시구를 얼마나 불필요하게 부풀렸는가!”(Serrurier 1920:207)

볼테르의 세 번째 번역은 셰익스피어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프랑스 미적 취향을 고려하려는 균형 잡기의 시도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1776년, “가장 충실한” 번역을 표방한 르 투르뇌르의 셰익스피어 번역 전집 출간 이후, 볼테르의 태도는 급격히 강경해졌다. 이 번역본이 프랑스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자, 볼테르는 “영국의 단두대와 매음굴”이 “라신의 연극과 코르네유의 아름다운 장면들”(Voltaire in Besterman 1988:599)을 위협한다고 느꼈다. 그는 셰익스피어를 “야만적이고 저속하며 광기에 가득 찬” 작가로 비난하며, 르 투르뇌르의 번역이 “프랑스의 취향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15년 전 『유럽 모든 민족에 보내는 호소』에서 희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자신임을 자책한다.

“가장 모욕적이고 끔찍한 것은 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처음 말한 것도 바로 나왔고, 그의 거대한 퇴비 더미에서 찾아낸 진주 몇 알을 프랑스인에게 처음 보여준 것도 바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Voltaire in Besterman 1967:175)

이후 볼테르는 셰익스피어를 시골 장터극의 어릿광대 ‘질(Gilles)’과 동일시하여 “질 셰익스피어”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볼테르는 셰익스피어를 통해 프랑스 문학의 혁신을 꿈꾸었지만, 노년의 그에게 셰익스피어의 이름은 자신이 대표한다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다. 결국, 그는 셰익스피어와의 전쟁 최전선에 서게 되었고, 프랑스 문학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의 어조는 점점 더 절박하고 전투적으로 변해갔다.

### III. 나가며

볼테르가 햄릿의 독백을 프랑스어로 옮긴 방식은 꽤나 흥미롭다. 볼테르의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가 셰익스피어에 관해 쓴 여러 비평에서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셰익스피어를 번역하며 볼테르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프랑스 문학의 오랜 전통과 세련된 취향을 지키면서도, 셰익스피어의 거칠고도 강렬한 천재성을 전달해야 했다. 그의 세 번의 번역 시도는 이런 고민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첫 번역에서 볼테르는 셰익스피어의 ‘나쁜 취향’을 프랑스 독자들에게 맞춰 수정했다. 두 번째 번역에서는 문자역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결점을 부각하려 했고, 마지막 번역에서는 두 번의 시도를 종합해 프랑스 문학의 전통과 셰익스피어의 독창성 사이에서 조금은 더 나은 균형점을

찾으려 애썼다.

이 세 번역 중에서 가장 널리 퍼지고 영향력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버전이다. ‘번안의 노력이 절정에 달한’(Israël 1990:12) 이 번역은 거의 2세기 동안 셰익스피어 번역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후대 번역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두 번째 번역이다. 바로 이 번역에서 출발해서<sup>9)</sup> 라 플라스와 르 투르뇌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볼테르의 작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셰익스피어를 프랑스에 소개한 공은 인정받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볼테르의 번역이 셰익스피어 수용의 터를 닦았고, 이를 통해 프랑스 문학이 자국 문학의 발에 새로운 감수성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이다.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영국 작가들의 작품은 “스펙터클, 피, 다양성으로 이뤄진, 근본적으로 낯선 세계”(Biet 2000:29)를 통해 프랑스 문학의 틀을 흔들어 놓았다. 베르만이 지적대로, 영국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프랑스어는 처음으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받아들였다. 자신만의 방식에 간혀 쇠퇴하던 프랑스어는 번역을 통해, 그리고 번역이 요구하는 고유한 요구 사항들을 통해, 자신을 쇄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볼테르 자신이 프랑스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0년에 걸친 그의 번역 작업은 18세기 프랑스 문학이 겪은 ‘낯선 것의 시련’의 시작이었다. 그의 번역은 프랑스 문학의 견고한 틀에 작은 틈을 만들어냈고, 이 틈으로 스며든 새로운 요소들이 프랑스 문학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과정은 당시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이 ‘낯섦’과 어떻게 부딪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9) 독백의 첫 구절을 라 플라스는 “존재할 것인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멈춰라, 선택해야 한다(Être, ou n’être plus? arrête, il faut choisir!)”로, 르 투르뇌르는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문제다(Être ou ne pas être! c’est là la question.)”로 번역했다(Thomas 2013).

## ■ 참고문헌

- 선영아(2024), 「햄릿에게 프랑스어를 말하게 하라 - 셰익스피어의 번역자 볼테르」, 『프랑스어문교육』 86, 293-309.
- 이영목(2001), 「계몽주의 시대의 ‘야만’의 개념」, 『불어문화권연구』 11,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76-89.
- Berman, A.(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i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 \_\_\_\_\_ (1985),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Paris: Seuil.
- \_\_\_\_\_ (1993), “La traduction des œuvres anglaises aux XVIII<sup>e</sup> et XIX<sup>e</sup> siècles: un tournant,” *Palimpsestes* 6, 15-21.
- Barbafieri, C. (2015), “Du goût, bon et surtout mauvais, pour apprécier l'œuvre littéraire,” *Littératures classiques*, 86(1), 129-144.
- Besterman, T.(ed.)(1953-1965), *Voltaire's Correspondence*, Genève: Institut et Musée Voltaire.
- \_\_\_\_\_ (ed.)(1988), *Correspondance XII*, Paris: Gallimard.
- Biet, C.(2000), “Le Théâtre Anglois d'Antoine de La Place(1746-1749), ou la difficile émergence du théâtre de Shakespeare en France,” *Actes des congrès de la Société française Shakespeare* 18, 29-50.
- Billaz, J.-C. (1997). “La Traduction libre dans le théâtre classique français,” *Revue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97(2), 373-379.
- Bret, P.(2010), “Le défi linguistique de l'Europe des Lumières: la traduction, creuset des circulations scientifiques internationales (années 1680-années 1780),” in Beaurepaire, P.-Y. & Pourchasse, P., *Les circulations internationales en Europe - Années 1680 - années 1780*,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323-336.
- Chantalat, C.(1992), *À la recherche du goût classique*, Paris: Klincksieck.

- Green, J.(1968), “French Reaction to Shakespeare,” *BYU Studies Quarterly* 8(2), 147-157.
- Hifnawy, R. (2021), “L’essor littéraire de William Shakespeare en France,” *JFAFU*, 1163-1204.
- Israël, F.(1990), “Shakespeare en français: être ou ne pas être?,” *Palimpsestes* 3, 11-22.
- Magnan, A.(1995), “Langues,” in Goulemot, J., Magnan, A. & Masseur, D. (dir.), *Inventaire de Voltaire*, Paris: Gallimard.
- Mayer, J.-Ch.(2021), “Shakespeare and the Origins of European Culture Wars,” in Chapman, R. & Spinozzi, P., *New Faces. Facing Europe in Crisis: Shakespeare’s World and Present Challenges*, London: UCL Press, <https://cnrs.hal.science/hal-0350468>.
- Naugrette, J.-P. (2017), *Shakespeare et le classicisme français: études sur la réception de Shakespeare en France*, Paris: Garnier.
- Paulin, R.(2007), “Othello et la pratique traductrice des années 1760: Wieland et Voltaire,” *Revue germanique internationale* 5, 13-21.
- Pei, L.(2022), “Voltaire traducteur de Shakespeare, légitimités et illégitimités interprétatives,” *Eighteenth-Century French World* 7-1, 1-14.
- Thomas, F. (2013), “‘Il faut être anglais et avoir une bonne dose de punch dans le crâne pour apprécier les scènes de Falstaff.’ Une œuvre est-elle transposable d’un univers culturel à l’autre?,” *Revue Sciences/Lettres*, 152-165.
- Venuti, L.(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Volpilhac-Augier, C.(2009), “Monnaie de cuivre, monnaie de singe: la traduction des œuvres antiques, une écriture mineure au XVIII<sup>e</sup> siècle?,” in Bahier-Porte, Ch. & Jomand-Baudry, R.(éd.), *Écrire en*

- mineur au XVIII<sup>e</sup> siècle*, Paris: Éditions Desjonquères, 217-227.
- Voltaire(1730/1877), “Discours sur la tragédie,”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2, Paris: Garnier.
- \_\_\_\_\_ (1734/1879), “Lettres philosophiques,”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22, Paris: Garnier.
- \_\_\_\_\_ (1748/1878), “Dissertation sur la tragédie ancienne et moderne,”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4, Paris: Garnier.
- \_\_\_\_\_ (1756/1878), “Essai sur les mœurs et l’esprit des nations,”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12, Paris: Garnier.
- \_\_\_\_\_ (1761/1878), “Appel à toutes les nations de l’Europe,”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24, Paris: Garnier.
- \_\_\_\_\_ (1764/1878), “Dictionnaire philosophique,” *Œuvres complètes de Voltaire* 19, Paris: Garnier.
- \_\_\_\_\_ (1776/1988), *Correspondance XII(janvier 1775-juin 1777)*, edited by T. Besterman, Paris: Gallimard.
- \_\_\_\_\_ (1953-1965), *Voltaire’s Correspondence* 42, edited by T. Besterman, Genève: Institut et Musée Voltaire.
- von Stackelberg, J.(2007), “Traduction,” in Delon, M.(dir.), *Dictionnaire européen des Lumières*, Paris: PUF.

❖ ABSTRACT

## The Norms of “Taste(*goût*)” and the The Trial of the Foreign – Voltaire’s Translation of Shakespeare

Seon, Yeonga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oncept of ‘taste (*goût*)’ in 18th-century France influenced translation practices, particularly focusing on Voltaire’s translation of Shakespeare. Profoundly influenced by Shakespeare’s works during his exile in England, Voltaire endeavored to integrate them into French literature, despite grappling with the traditional norms of French taste and aesthetic standards. In his initial translation, he modified Shakespeare’s free expressions to align with French readers’ preferences. Subsequently, he attempted a more literal translation to emphasize Shakespeare’s perceived shortcomings. Lastly, in his third effort, he refined his previous translation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French literary tradition and Shakespeare’s original expressiveness. Voltaire’s translations illustrate the role of the ‘taste’ concept in translation practices and highlight its impact on the preferences and values of 18th-century French literature. This case study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traditional French aesthetics and the incorporation of foreign literary elements, shedding light on the evolution of French literary taste amid foreign artistic influences.

Keywords: taste(goût), translation, Voltaire, reception of Shakespeare,  
18th-Century French Literature

■ 논문투고일 : 2024. 09. 07

■ 심사완료일 : 2024. 10. 02

■ 게재확정일 : 2024. 10. 11

